

HIF월간 산업 이슈(5월)

Monthly Industrial Issue

산업별 주요 이슈

일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산업은?

김유진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집에서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언택트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전망
- 수혜산업인 음식료(온라인 채널, HMR), 헬스케어(건강기능식품, 원격진료), 재택근무(홈 오피스 용품, 통신 인프라), 교육(에듀테크), 홈 엔터(OTT, 온라인 게임, 웹툰) 내 성장 잠재력이 큰 기업을 발굴하고, 여신금융의 기회를 발굴할 필요

정유

정유업계,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 현실화

안혜영

- 코로나19에 따른 석유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로 1분기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4.4조원에 달함. 국내 상황은 안정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 여전히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고 경제활동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제한적
-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적 악화로 현금창출력도 크게 저하 되고 있어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필요

자동차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성 점검 및 시사점

김동한

- 고성장을 구가하던 수입차 시장은 디젤차 인증 강화, 한일 갈등의 영향으로 시장이 성장 정체를 보이고 있음. 그러나 시장 둔화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본 보의 분석 결과, (국가) 스웨덴, 독일 (배기량) 2000cc 이하, (연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차종) SUV, (구매유형) 개인, (지역) 인천, 대구 등이 고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조선

카타르 LNG선 중국 조선소 발주 의미와 전망

마지환

- 최근 카타르 페트로리엄은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LNG선 16척(8척 옵션)에 대한 슬롯(Slot)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LNG 수입 확대가 이번 중국 조선소 선박 발주에 결정적인 영향
- 중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경쟁력 고려 시 중국의 추가 수주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나,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락으로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유통

소매업 및 음식점업, 코로나에 의한 부정적 영향 완화

김문태

- 코로나로 인해 3월 소매업, 음식점업, 여행 등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4월에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며 전월대비 회복세를 나타냄
- 언택트, 홈코노미, 명품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2차 확산이 우려되고 있어 추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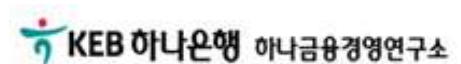
공모 리츠 가격, 부동산 내재가치보다는 KOSPI에 연동

황규완

- 배당수익에 대한 매력도가 부각되면서 시장에 안착했던 공모 리츠의 가격이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위축에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리츠의 고유한 위험요인 중의 하나
- 가격 하락으로 배당 수익률은 높아졌으나 최고점 대비 낙폭이 매우 크고 성장성이 낮아 가격 회복이 지연될 경우 시장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조*경/0118430**/2020-05-13 09:23



산업별 경기 트렌드

경기사이클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C10-11. 음식료품	음식료				●		
C13. 섬유	섬유		●				
C14. 의류	의류		●				
C19. 정유	정유	●					
C20-21. 화학제품	석유화학						●
	제약				●		
C22. 고무,플라스틱	고무,플라스틱	●					
C23. 비금속광물	시멘트						
C24. 1차 금속	철강						●
	비철금속						●
C26. 전자부품, 영상 통신장비 등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장비(휴대폰)						
C29. 기계	일반기계		●				
C30. 자동차	자동차		●				
C31. 가전·운송장비	조선		●				
D. 에너지/인프라	재생에너지	조*경/0118430**/2020-05-13 09:23					
F. 건설	건설						
G. 종합유통	무점포(온라인)			●			
	종합소매업(대형)		●				
	편의점		●				
H. 숙박 및 음식점	숙박(N/A)						
I. 운수	해상운송		●				
	항공운송	●					
J. 통신,미디어	통신서비스						
	SW/SI						
L. 부동산 및 임대	부동산		●				

산업 이슈

일반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산업은?

정유 : 정유업계,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 현실화

자동차 :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성 점검 및 시사점

조선 : 카타르 LNG선 중국 조선소 발주 의미와 전망

유통 : 소매업 및 음식점업, 코로나에 의한 부정적 영향 완화

부동산 : 공모 리츠 가격, 부동산 내재가치보다는 KOSPI에 연동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05-13 09:23

일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산업은?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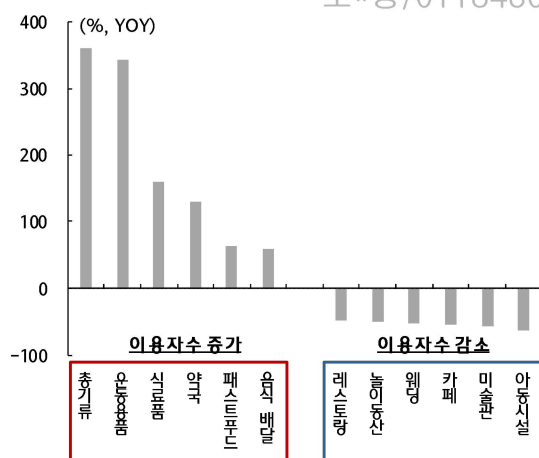
※ **Summary** : 코로나19로 실물경제가 타격 받고 있으나, 이는 역설적으로 경제 트렌드 변화로 특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최근 개인의 안전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생산 및 소비활동의 중심이 온라인으로 이동.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집에서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언택트 문화가 전 세대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전망

※ **Comment** : 유망산업 내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여신정책을 견지하면서 기업금융의 기회를 모색할 필요

■ 코로나19로 전 세계 실물경제가 타격 받고 있으나, 이는 경제 트렌드 변화로 특정산업이 성장하는 계기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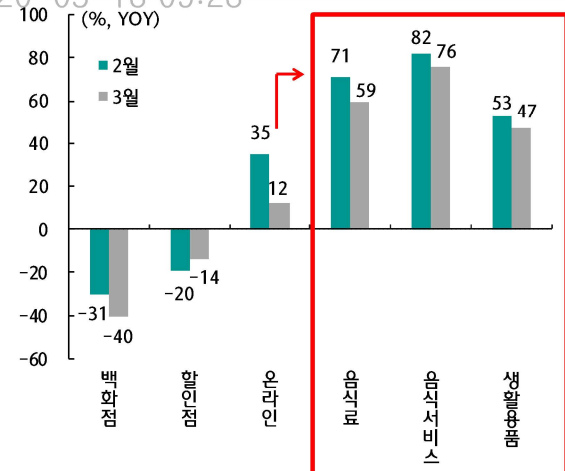
- WHO가 코로나19에 대해 3월 11일 전염병 최고 경보 단계인 팬데믹을 선언한 후에도 확진자수가 가파르게 늘면서 전 세계적으로 400만 명을 돌파(20.5.11 기준)
- 이에 전반적인 경제 활동이 위축되면서 실물경제가 타격 받고 있고, 경기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주요국 증시가 급등락하는 등 금융시장도 혼란
 - 4월 IMF는 G20의 2020년 경제성장률을 1월 전망치에서 6.2%p 하락한 -2.8%로 하향
-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으로 일상생활의 패턴을 변화시키고 있는데, 이는 역설적으로 특정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
 -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 내 소비 행태를 살펴보면 아동시설·술집·미술관·카페 등의 이용자수가 급감한 반면, 추가운동·식료품·약국 등의 이용자수는 증가

그림1 | 코로나19 이후 미국 주요 시설별 이용자수 증감률



주 : 3월 기준
자료 : Yelp

그림2 | 코로나19 이후 국내 소매채널별 매출 변화



주 : 2월, 3월 소매판매 증가율 기준
자료 : 통계청

1) 자세한 내용은 “코로나19 이후의 대변혁 ①포스코 코로나 시대, 주목받는 산업은?” 참조

■ 포스트 코로나 시대,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되면서 온라인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

-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으로 생산·소비활동의 중심이 온라인 채널로 이동하고, 개인 안전 및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대한 니즈가 증대
- 재택근무, 온라인 학습, 여가생활 등 가정 내 경제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코로나19로 삶과 일에 대한 고정관념이 바뀌면서 경제구조와 생활양식이 변화될 전망
- 따라서 밀레니얼 세대의 전유물이라 여겨지던 언택트 문화가 전 세대에 걸쳐 확산되는 등 주요산업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디지털 경제가 가속화될 전망
- 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집에서 먹고 일하고 공부하고 즐기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관련 산업의 성장이 기대
 - 예상 수혜업종 : 음식료(온라인 채널, HMR), 헬스케어(건강기능식품, 원격진료), 재택근무(홈오피스 용품, 통신 인프라), 교육(에듀테크), 홈 엔터테인먼트(OTT, 온라인 게임, 웹툰)

■ 금융사는 언택트 문화와 디지털 경제 관련한 유망기업 발굴로 영업기회를 모색할 필요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에서 공격적인 R&D 및 시설 투자로 시장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을 발굴하고, 대출 또는 직·간접 투자 등으로 자금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
 - 음식료(CJ제일제당, 오뚜기, 대상), 헬스케어(한국인삼공사, 동원F&B, 유비케어, 인성정보, 인피니트헬스케어), 재택근무(알서포트, 네이버, 포스코CT, SK텔레콤), 에듀테크(청담러닝, 메가스터디, 아이스크림에듀), 홈엔터(엔씨소프트, 스튜디오드래곤) 등

표1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유망산업 정리

생활패턴 변화	관련 산업	주요 내용
건강관리에 힘쓰면서	건강기능식품	■ 전염병 리스크로 일상적인 건강관리가 중요해지면서 건강기능식품 수요가 전 연령층으로 확대
	스마트 헬스케어(원격진료)	■ 한시적으로 허용된 원격진료의 경험은 국내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 성장의 밑거름으로 작용
집에서 (먹고)	온라인 음식료	■ 소비 트렌드 변화(고객층 확대), 기술 발달(식품관리 기술, 택배 인프라, 배달앱), 지리적 특성(작은 영토) 등을 바탕으로 온라인 음식료 시장이 성장
	가정간편식(HMR)	■ 인구구조 변화(1인 가구 및 맞벌이 가구 증가) 하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갖춘 HMR이 성숙기 음식료 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
(일하고)	원격근무(플랫폼,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 재택근무의 경험을 토대로 향후 비대면 근무가 보편적인 업무형태로 인식된다면 커뮤니케이션 SW,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5G 인프라, 스마트 팩토리 관련 서비스 시장의 성장이 기대
(공부하고)	에듀테크(EduTech)	■ 코로나19로 매력도가 높아진 에듀테크 시장은 정부 정책(에듀테크 스타트업 지원), 수요자층 확대(평생교육 니즈 증가), 가성비(오프라인 대비 저렴) 등으로 향후 안정 성장을 지속
(즐긴다)	홈 엔터테인먼트	■ 집안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홈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대한 수요가 중장년층으로 확대되면서 디지털 문화산업(OTT, 온라인 게임, 웹툰 등)의 저변이 확대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19. 정유 : 정유업계, 1분기 사상 최악의 실적 현실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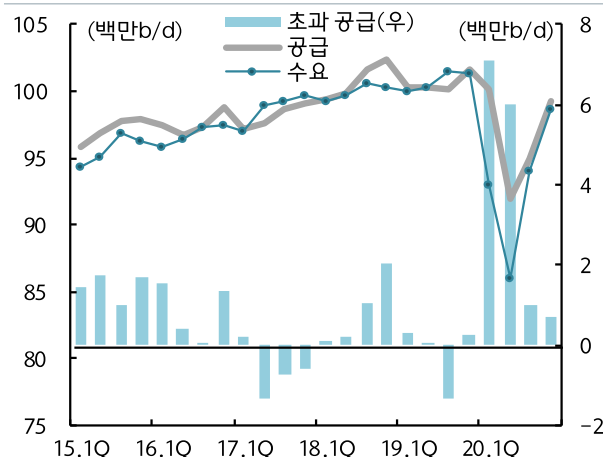
※ **Summary** : 정유업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재고평가 손실로 인해 1분기 적자규모가 사상 최대 규모인 4.4조원에 달함.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2분기 내수 회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미국, 유럽 등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고 경제활동 정상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 **Comment** : 대규모 투자로 인해 재무 부담이 확대된 상황에서 실적 악화로 현금창출력도 크게 저하되고 있어 유동성 악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필요

■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급락으로 1분기 사상 최대 규모의 적자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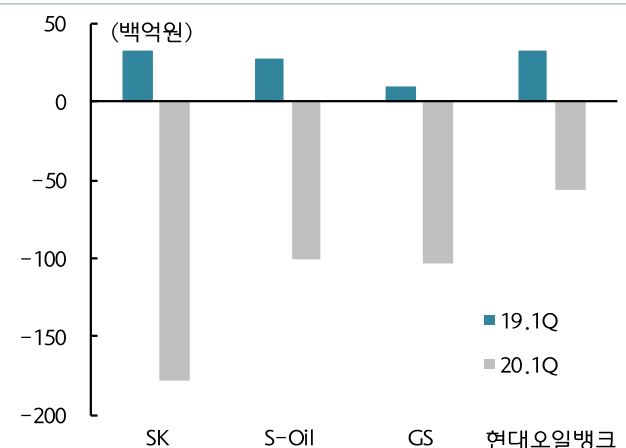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유가 급락에 따른 석유 제품의 재고 가치 하락으로 1분기 정유사들의 실적 악화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
 - 유가가 배럴당 1달러 하락할 경우 정유 4사의 합산 영업이익은 700~800억원 가량 감소 추정
 - 국내 1분기 정유 4사의 합산 영업적자 규모는 4조 3,775억원에 달하면서 국내 정유업계의 역대 최대 규모의 적자를 기록
 - 정유사별 1분기 적자규모 : S-Oil 1조 73억원, 현대오일뱅크 5,632억원, SK이노베이션 1조 7,752억원, GS칼텍스 1조 318억원
- ※ 현대오일뱅크는 수요 감소에 대응하여 지난해 말부터 공장가동률을 낮췄고 정기보수 일정도 앞당겨 재고를 최소화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적자폭이 낮았던 것으로 파악
- 지난해 정유 4사의 연간 합산 영업이익은 3조 1천 억원 수준이었으나, 2020년 1분기 만에 지난해 연간 수익보다 1조원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됨

그림3 | 글로벌 석유 수급 전망



자료 : EI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4 | 2020년 1분기 정유 4개사 영업 손실



자료 : 각사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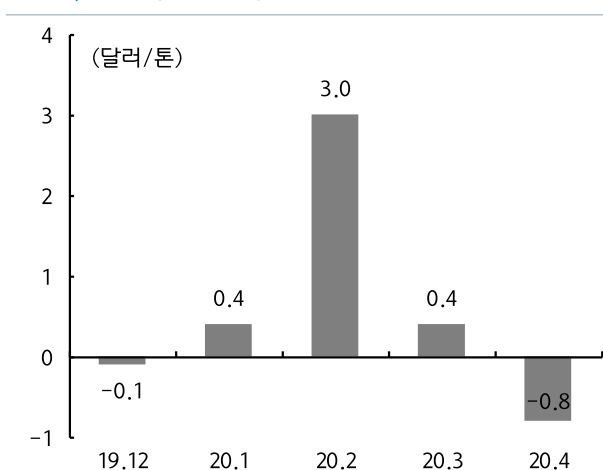
■ 사우디 OSP하락, 국내 수요 회복 기대에도 불구하고 2분기에도 실적 부진 지속 전망

- 4~5월 사우디 아람코의 원유 인도분 공식 판매 가격인 OSP가 하락하면서 정유사의 5, 6월 정제마진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
- 그러나 원유 도입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수요 감소로 석유제품 가격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7주 연속 정제마진이 (-)를 기록하고 있어 정유사의 손실이 지속 중
 - 정제마진은 3월 3째 주(-1.9달러/배럴)부터 4월 5째 주(-0.9달러/배럴)까지 마이너스 기록
- 또한 5월 6일 부터 국내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되면서 2분기 내수 회복 가능성이 제기 되고 있지만 미국, 유럽 등에서 여전히 코로나19가 확산중으로 실적 개선 효과는 제한적
 -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가 경제활동 재개를 선언하고 있지만 경제활동 정상화에는 시간이 필요
- 결국 근본적인 석유 수요 회복 없이는 업황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나,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진화되는 것은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여 2분기에도 실적 개선은 어려울 전망
 -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중국 등의 아시아 지역의 공급과잉 심화로 인해 업황 회복은 제한적

■ 최악의 유동성 위기 직면한 정유업계,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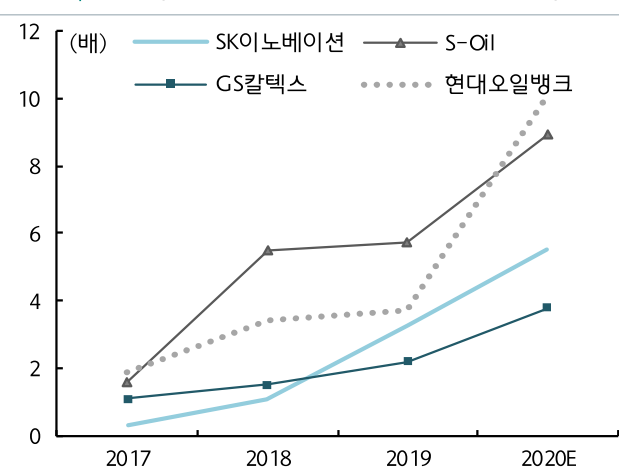
- 국내 정유업계는 지난 2~3년 간 사업다각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투자로 재무 부담이 확대되었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과 유가급락으로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하며 현금창출력이 저하되면서 유동성 악화 우려 확대
 - 정부도 정유업계의 위기상황을 감안해 약 1.4조원에 달하는 세금에 대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유예
-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가 겪어보지 못한 수준의 실적 악화가 발생한 만큼 각 정유사별 업황 대응능력, 현금 창출력 등을 파악하고 단기, 중장기 재무 부담 수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강도 높은 리스크 관리가 필요

그림5 | 최근 정유사의 정제마진 추이



자료 : 페트로넷 하나금융경영연구소

그림6 | 국내 정유사의 순차입금/EBITDA 추이 및 전망



자료 : Kis-Value, 한국신용평가

30. 자동차 : 국내 수입차 시장의 성장성 점검 및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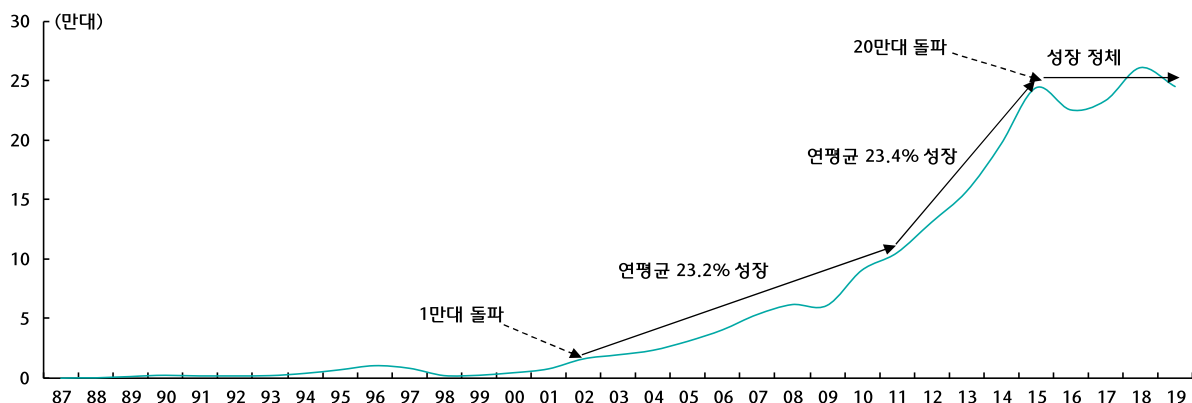
- ※ **Summary** :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의 연비 파문 이후 인종 지연과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 도입으로 디젤 신차의 공급이 부진한 상황. 또 국내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불만을 품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국내 소비자들의 반일 감정을 초래하면서 2019년 하반기부터 일본산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본격화됨. 그에 따라 고성장을 구가하던 국내 수입차 시장은 2015년 이후 성장 정체를 나타내고 있음. 그러나 시장의 정체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이는 부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 **Comment** : 분석 결과, (국가) 스웨덴, 독일 (배기량) 2000cc 이하, (연료)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가솔린차, (차종) SUV, (구매유형) 개인, (지역) 인천, 대구 등이 고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성장을 구가하던 국내 수입차 시장은 2015년 이후 성장 정체를 나타내고 있음

- 국내 수입차 시장은 2002년 내수판매 1만대 재 돌파 이후 2015년 내수판매 20만대를 돌파 할 때까지 연평균 20% 이상의 고성장을 구가하였음
 - 2002~2011년 동안은 연평균 23.2%, 2011~2015년 동안은 연평균 23.4%로 성장
- 그러나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사태,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에 따른 일본 수입차 불매운동의 여파로 수입차 시장의 성장세가 약화되고 있음
 - 최근 5년 동안의 판매량이 22~24만대 사이에 머물고 있는 상황
- 2019년 수입차 판매량은 24만4,780대로 전년비 -6.1%를 기록하였고 2015년 대비 불과 +0.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수입차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16.7%에서 2019년 15.9%로 -0.8%p 기록

조*경/0118430**/2020-05-13 09:23

그림7 | 국내 수입차 시장 동향



자료: 한국수입차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성장 둔화의 원인은 환경부의 디젤차 인증지연과 WLTP 시행에 따른 물량 부족 때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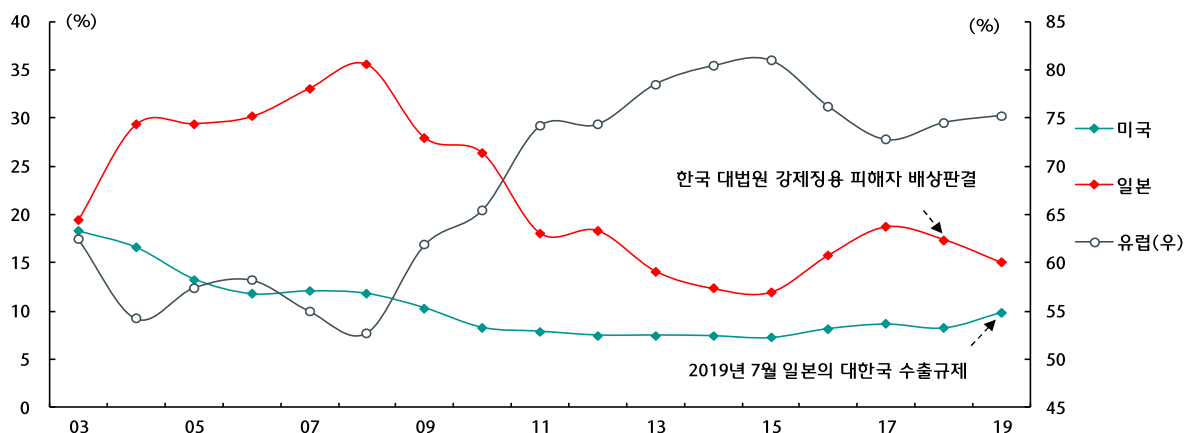
- 2015년 폭스바겐 다젤 게이트를 계기로 인증 절차가 강화되면서, 과거에는 통상 2주 정도면 인증을 받았지만, 이제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가까이 소요
 - 인증 취소 처분의 경우 제출 서류의 마비 등을 이유로 계속 발생
- '18.9월 디젤차 배출가스 실험실 측정방식을 유럽연비측정방식(NEDC))에서 연비와 배출가스 기준이 강화된 국제표준배출가스시험방식(WLTP)으로 변경
- 결국 판매할 차량이 크게 부족하였고, 판매할 수 있는 차종도 감소하면서 수입차 시장의 판매량이 계속 줄었고, 판매 순위도 인증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기 시작함
 - 디젤 모델이 인증을 받기가 까다로워지면서 상대적으로 인증을 받기가 수월한 가솔린 모델의 판매 강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

■ 또 다른 원인은 對日 불매운동에 따른 일부 모델의 수요 부진 때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음

-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을 계기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일본의 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강화로 이어졌고, 이에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발생하였음
- 국내 수입차 시장도 예외는 아니었는데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강화가 시작된 2019년 7월부터 일본 수입차 브랜드의 판매 실적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음
- 렉서스와 혼다는 2019년 상반기 33.4%, 94.4% 성장률을 보였지만, 결국 -8.2%, 10.1%로 한 해를 마무리했고, 도요타의 경우 전년비 -36.7%를 나타냄
 - 결국 일본 브랜드의 시장점유율은 2018년 17.4%에서 2019년 15%로 2.4%p 하락

조*경/0118430**/2020-05-13 09:23

그림8 | 국내 수입차 시장 내 국적별 시장점유율 추이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하지만 시장의 성장 정체 속에서도 차별화된 성장을 지속하는 부문에 주목할 필요

- 전술한 바와 같아 2015년 폭스바겐 연비파문, 불매운동, 코로나19의 영향 등으로 국내 수입차 시장이 둔화되면서 향후 제한적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다양한 소비자 취향과 시장의 욕구를 이해하며 유연한 대응과 혁신으로 새로운 수요를 흡수해 나가는 영역은 차별화된 성장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이를 확인하기 위해 6가지 지표(국가, 배기량, 연료, 차종, 구매유형, 지역)에 대해 2009~2019년 동안의 연간 판매대수를 활용하여 수입차 시장의 성장성 분석을 진행
 - 각 지표의 항목별 연평균 판매증가율의 경우 장기(2009~2019년), 단기(2016~2019년)에 대해서 계산한 후 40% 대 60%로 가중평균을 계산함
 - 판매비중을 고려한 항목별 가중평균들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항목 간의 성장을 비교분석
- 위에서 언급한 6가지 주요 지표를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브랜드) 스웨덴 Volvo, 독일 Mercedes-Benz, (배기량) 2000cc 이하 차량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남
- (연료별) 하이브리드차와 가솔린차의 성장성이 높게 나타났고, 전기차의 판매 비중은 1% 정도로 미미하지만, 미래 친환경차 시대라는 흐름 속에 보조금 지원에 힘입어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차종별) 시장에서 세단의 비중이 아직 높지만, 성장성은 SUV가 세단을 압도하고 있고, (구매유형별) 법인보다 개인의 구매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지역별) 현재 경기, 서울 등의 시장점유율이 높지만, 2009~2019년 동안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인 인천, 대구 지역을 주목할 필요
 - 지역별 성장성 분석시 지역별 취득세 변화와 차이는 고려하지 않음

표2 | 국내 수입차 시장에서 6가지 지표별 성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부문

지표	고성장 부문	비고란
국가	스웨덴, 독일	· Volvo, Mercedes-Benz 브랜드가 독보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음
배기량	2000cc 이하	· 2000~3000cc, 4000cc 이상 차량의 시장은 역성장을 보이고 있어 주의할 필요
연료	전기차, 가솔린, HEV	· 2015년 폭스바겐 그룹의 연비 파문 이후 디젤 신차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워진 상황
차종	SUV	· 현재 세단 비중이 높긴 하지만, 성장성의 경우 SUV가 세단을 압도하고 있음
구매유형	개인	· 전체적인 성장세가 고르지만, 법인보다는 개인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남
지역	인천, 대구	· 인천, 대구의 경우 10년 전 보다 가파르게 성장해서, 현재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인구 1,000명당 수입차 보유대수도 많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자료 : 한국수입차협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C31. 조선 : 카타르 LNG선 중국 조선소 발주 의미와 전망

※ **Summary** : 최근 카타르 페트로리엄과 중국 후동중화조선은 LNG선 16척 건조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중국의 LNG 수입 급증이 이번 발주에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분석. 중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경험, 선주들의 신뢰도 고려 시 카타르의 추가 LNG선 발주는 대부분 한국 조선소와 진행할 가능성이 높음. 다만 최근 천연가스 가격 급락에 따른 전 세계 LNG 프로젝트 연기는 수주에 부정적

※ **Comment** :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전 세계 경기 침체와 에너지 가격 하락 등으로 조선업의 회복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해운업 수급 개선, 환경규제 및 LNG 수요 증가로 단기 침체 후 회복 전망

■ 최근 카타르는 중국 조선소에 LNG선 16척을 발주하였으며, 중국 LNG 수입 급증이 발주 배경

- 최근 카타르 페트로리엄(Qatar Petroleum)은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LNG선 16척(8척 옵션)에 대한 슬롯(Slot) 예약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약 30.2억 달러 규모
 - 해당 선가는 1.89억 달러로 현재 시장(Market) LNG선(174K CBM) 선가와 유사한 수준
- 이번 발주는 North Field 가스 증산 및 일부 기존 선박 대체를 위한 것이었으며, 카타르 에너지부 장관은 올해 여름까지 적어도 60~80척의 LNG선 추가 발주 계획을 밝힘
 - 카타르 LNG 프로젝트 계획 고려 시 예상 LNG선 발주량은 120여척(이번 발주 포함)
- 중국의 LNG 수입 확대가 이번 중국 조선소 선박 발주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의 LNG 수입은 최근 5년 간(2014~2019년) 연평균 26.8% 성장
 - 전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인 카타르 입장에서 최근 큰 폭의 성장세로 전 세계 2위 LNG 수입국으로 등극한 중국을 LNG선 발주에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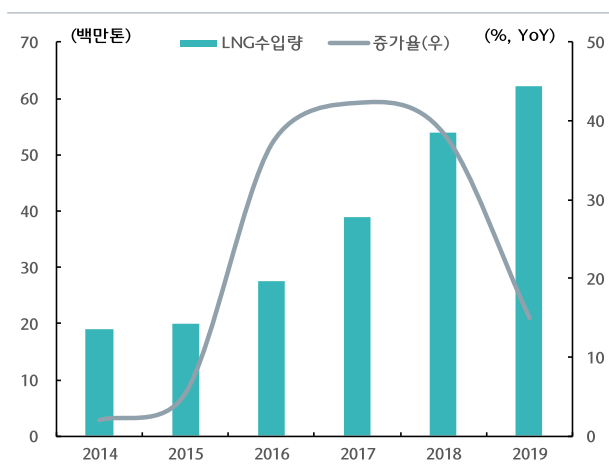
조*경/0118430**/2020-05-13 09:23

표3 | 카타르 LNG프로젝트 현황

프로젝트명	개시연도	생산능력 (MTPA)	LNG선 요구량(척수)
Qatargas I~IV	Existing	40.8	45
RasGas I~III	Existing	36.3	40
North Field Expansion T1~4	2025년	31.2	40
North Field Expansion T5~6	2027년, 2028년	15.6	20
합계	-	123.9	145
기존 보유 LNG선	-	-	29
예상 발주량	-	-	116

주 : 현재 FEED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평균 1MTPA 당 LNG선 요구량 1.1척
자료 :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 중국 LNG 수입량 추이(2014~2019년)



자료 : Clarkson

■ 중국 조선소의 LNG선 건조 경쟁력 고려 시 중국의 추가 수주는 당분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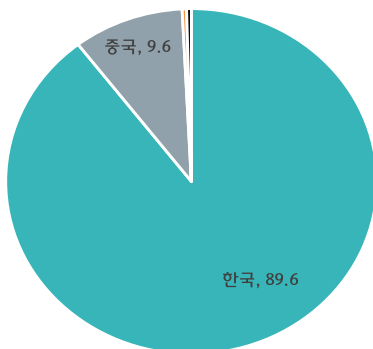
- 중국 조선소 중 대형 LNG선 건조 경험이 있는 조선소는 한정적이며, 이번에 LNG선을 수주한 후동중화조선도 연간 LNG선 건조능력이 6척(8척으로 확대 계획)에 불과
- 뿐만 아니라 과거 후동중화조선이 건조한 LNG선이 2년도 되지 않아 주리를 받는 등 선주들이 아직 중국 조선소를 신뢰하기 어려워 단기간 내 중국 조선소의 추가 수주는 제한적이며, 이에 따라 카타르의 잔여 LNG선 발주는 한국의 수주 가능성이 높음
- 실제 올해 3월 말 기준 LNG선 수주점유율(수주잔고 기준)은 한국 89.6%, 중국 9.6%로 한국 주요 조선소가 전 세계에서 발주되는 대부분의 LNG선을 수주하고 있는 중
- 다만 중국 정부가 LNG선 건조 능력 향상을 조선 산업 핵심과제로 삼고 육성 중이므로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LNG선 독점적 수주가 지속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다만 천연가스 가격 급락으로 다수의 LNG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는 점은 수주에 부정적

- 이렇듯 국내 주요 조선소는 LNG선 건조에 높은 경쟁력을 보유 중이나, 최근 코로나 19 팬데믹과 국제유가 급락 등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하여 올해 FID(최종투자결정) 계획 중이었던 전 세계 주요 LNG 프로젝트가 연기되고 있는 점은 부정적
 - 4월 21일 기준 Henry Hub²⁾ 가격은 MMBtu³⁾당 1.92달러로 1년 전 대비 26.4% 하락
 - Driftwood LNG 3년 연기, Rovuma LNG 및 Lake Charles 프로젝트 1년 연기 등
- 단 환경규제에 따른 전 세계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계획되었던 LNG 프로젝트가 생산 개시 시기만 지연되었을 뿐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 

그림10 | 전 세계 LNG선 수주점유율

(%)



주 : 2020년 3월 말 수주잔고(금액) 기준
자료 : Clarkson

2) 북미의 대표적인 천연가스 가격 지표이며, 아시아는 JKM, 유럽은 TTF(네덜란드 가스 허브)가 대표적 천연가스 지표
3) 1MMBtu는 약 25만Kcal의 열량을 내는 가스량

그림11 | 국제 천연가스 가격 추이(최근 1년 간)



주 : JKM은 Japan Korea Marker, TTF는 Title Transfer Facility의 약자
자료 : S&P Global Platts

㉔. 종합유통 : 소매업 및 음식점업, 코로나에 의한 부정적 영향 완화

※ **Summary** : 코로나로 인해 3월 소매업, 음식점업, 여행 등의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으나, 4월에는 소매업 및 음식점업의 소비 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소매업은 무점포 및 근거리 소형 점포가 양호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백화점 및 대형마트가 전월대비 성장으로 전환. 음식점업은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침체가 완화되는 한편 업체별로는 HMR에 진출하며 변화된 소비 행태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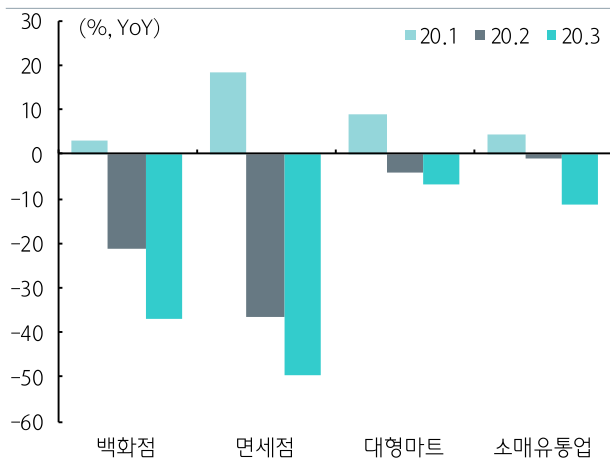
※ **Comment** : 언택트, 홈코노미, 명품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실물 경기 및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추후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

■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집합시설 기피 및 소비심리 위축으로 3월 소비가 크게 침체

- 2월 중순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3월에는 집합 시설에 대한 기피 현상 확대 및 소비심리의 위축으로 소매업, 여행, 음식점업 등 시장에서 침체가 나타남
- 소매유통업 중 해외 소비자가 주를 이루는 면세점과 대형 집합 시설인 백화점이 특히 판매액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전체 소매 판매액 급감
 - 3월 판매액 증감률(YoY) : 백화점 -36.8%, 면세점 -49.8%, 대형마트 -6.7%
 - 소매유통업 판매액 증감률(자동차 및 연료 제외) : 1월 4.3%, 2월 -0.9%, 3월 -11.3%
- 전염 우려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에 따른 외출 및 모임 자제로 여행 및 숙박업, 영화관업 등이 크게 위축되었으며, 음식점업 또한 약 30%의 감소를 보임
 - 3월 서비스업 생산지수 증감률(YoY) : 영화관 -88.0%, 여행사 -79.2%, 숙박업 -58.0%, 음식점업 -2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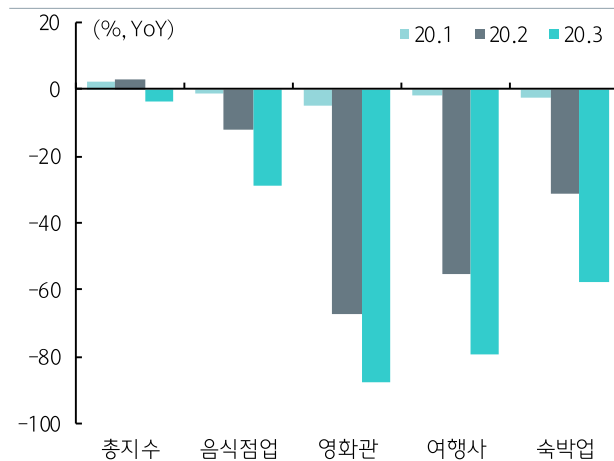
조*경/0118430**/2020-05-13 09:23

그림12 | 2020년 소매판매액 증감률



주 : 소매유통업은 자동차 및 연료판매액 제외
자료 : 통계청

그림13 | 2020년 서비스업 생산 증감률



주 : 경상지수 기준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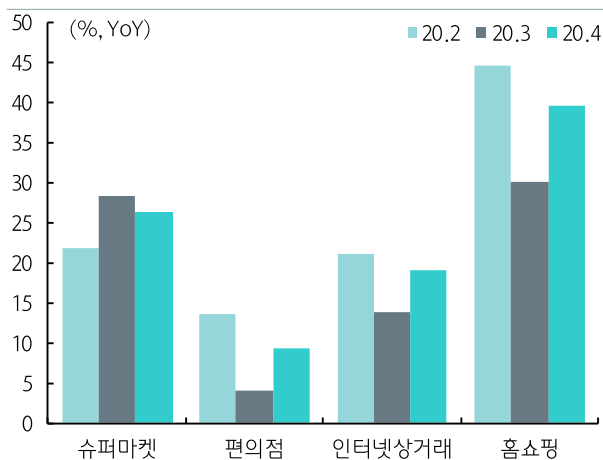
■ **소매유통업 중 편의점, 슈퍼, 온라인, 홈쇼핑 등은 양호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또한 4월에는 전월대비 매출 회복을 나타냄**

- 근거리 중소형 점포로 구성된 슈퍼마켓 및 편의점은 전염 우려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식품, 생활용품 등 생활필수품 위주 구성으로 양호한 성장세 유지
 - 생활필품 비중이 높고 기저효과가 큰 슈퍼마켓이 편의점 대비 높은 성장률을 보임
 - 4월 카드 결제액 증감률(YoY)⁴⁾ : 슈퍼마켓 26.4%, 편의점 9.3%
- 비대면 소비 선호로 코로나 직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이커머스,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또한 2월의 높은 성장률 대비 다소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양호한 성장세
 - 4월 카드 결제액 증감률(YoY) : 이커머스 19.1%, 홈쇼핑 39.7%
- 백화점, 대형마트는 코로나 직후 대형 집합 시설 기피 현상 및 임시 휴업 등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으며 아직 전년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월과 비교하여 회복세를 보임
 - 의류, 잡화 등 비생활필품 판매가 주를 이루는 백화점이 대형마트 대비 크게 위축됨
 - 4월 카드 결제액 증감률(YoY) : 백화점 -18.6%, 대형마트 -3.5%
 - 4월 카드 결제액 증감률(MoM) : 백화점 24.0%, 대형마트 9.6%

■ **외출 기피에 따라 침체를 보여 왔던 음식점업도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점진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업체별로는 HMR 사업을 확대하면서 소비 행태 변화에 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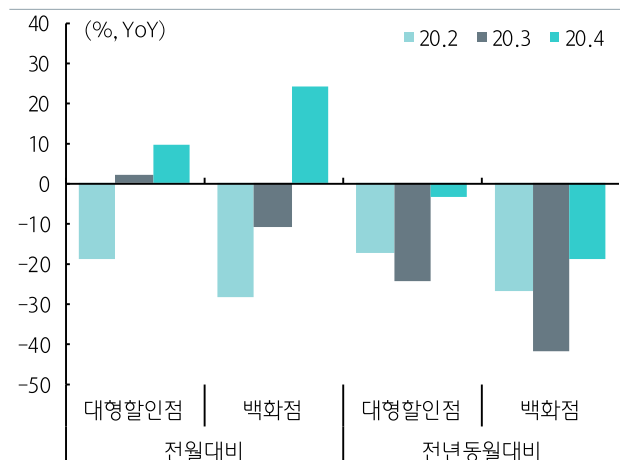
- 코로나 이후 비대면 및 집밥 선호의 소비 행태 변화에 배달, HMR 등으로 대응하고 있는 음식점업 또한 부정적인 효과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임

그림14 | 슈퍼마켓, 편의점, 온라인 카드 결제액



자료 : 내부자료

그림15 | 백화점 및 대형마트 카드 결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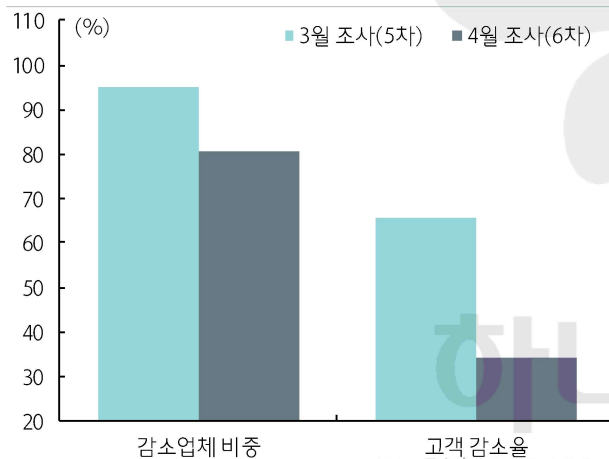


자료 : 내부자료

4) 그룹사 내부 카드 결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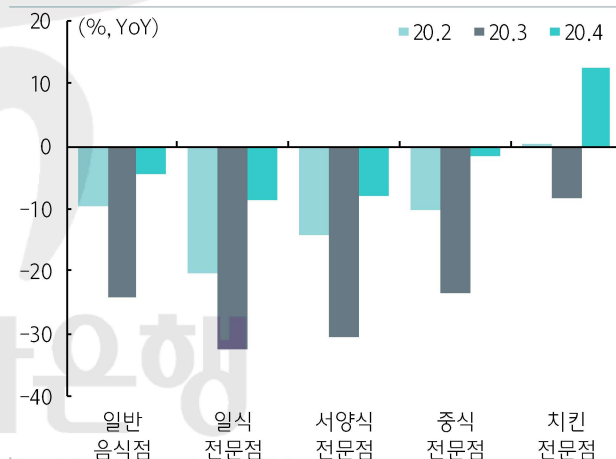
-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전(1월) 대비 고객 수 감소율은 지난 3월 65.8%에서 4월(4.5~4.10)에 34.1%로 둔화
-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 행태 증가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용이 급증하면서 배달 음식에 특화된 치킨전문점 및 중식전문점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약화
 -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 거래액은 2,3월 각각 YoY 84.0%, 75.8% 성장
 - 카드 결제액 증감률(YoY) : 치킨 3월 -8.1%, 4월 12.4% / 중식 3월 -23.6%, 4월 -1.5% / 일반(한식) 3월 -24.3%, 4월 -4.4% / 서양식 3월 -30.5%, 4월 -7.9%
- 배달 외에도 가정 내 식사를 위한 온라인 음식료품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음식점업 업체들은 관련 수요에 대응 가능한 HMR(가정간편식) 시장 진출 확대
 - 온라인 음식료품 거래액은 2,3월 각각 YoY 70.8%, 59.4% 증가

그림16 | 코로나 발생(1월 20일) 전 대비 고객 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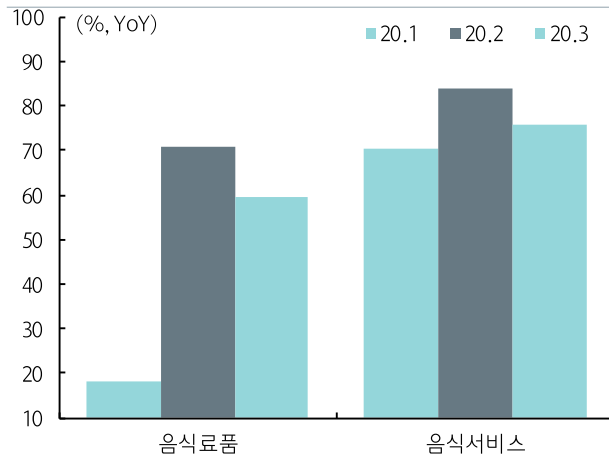
주 : 3월 조사는 3월 6일 완료, 4월 조사는 4.6~4.10일 간 조사
자료 : 한국외식산업연구원

그림17 | 음식점업 카드 결제액



자료 : 내부자료

그림18 | 온라인 음식료품/음식배달서비스 거래액 증감률



자료 : 통계청

표4 | 음식점 업체들의 HMR 진출 사례

브랜드	내용
구슬함박	- 홍대 인근 유명 식당인 '구슬함박'은 신세계푸드와 협업하여 '올반 구슬함박 스테이크' 출시 - CK 오쇼핑에서 초도물량 4,000개 완판
가연 푸드	- '화동갈비', '용두동갈비' 등을 운영하는 외식업체 - 온라인 식품물 '마켓컬리' 전용 상품으로 한우떡갈비, 한돈떡갈비 등 납품
파리바게뜨	- '함박 스테이크 파스타', '치킨 도리아' HMR 출시 - 출시월(3월) 대비 4월에 매출 50% 증가
설빙	- 지난 3월 HMR 브랜드 '설빙 밀'로 베이컨 크림스파게티, '로제 스파게티' 등 출시
계절밥상	- 2018년 29개 매장에서 15개 매장으로 오프라인 점포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최근 닭갈비, 닭날개 등 HMR 3종을 추가하며 관련 사업 확대

자료 : 서울경제, 뉴스투데이

■ 코로나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언택트, 홈코노미,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완화되면서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리스크 요인이 잔존하는 만큼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소매, 음식점 시장이 4월부터 확진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5월 가정의 달 수요로 회복가능성이 높아짐
- 특히 변화된 소비 행태에 적합한 언택트, 홈코노미 관련 상품과 해외여행, 문화생활 수요를 대체 가능한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회복될 전망
 - 2020년 4.30~5.3 연휴기간 동안 전년 연휴(5.3~5.6)와 비교하여 백화점 3사 상품별 매출액은 해외여행을 대체한 명품과 홈코노미를 위한 리빙, 가전 제품 판매가 약 20% 증가
- 다만, 여전히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일부 시장(공연, 여행 등)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실물 경기 침체 및 2차 확산 우려가 존재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 필요
 - 4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78) 대비 7p 하락한 71을 기록하며 위축된 심리를 반영
 - 4월 카드 결제액 증감률(YoY) : 여행사 -99.8%, 영화/공연장 -95.3%, 호텔 -58.2%
 - 한 자릿수로 낮아졌던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10일 기준 34명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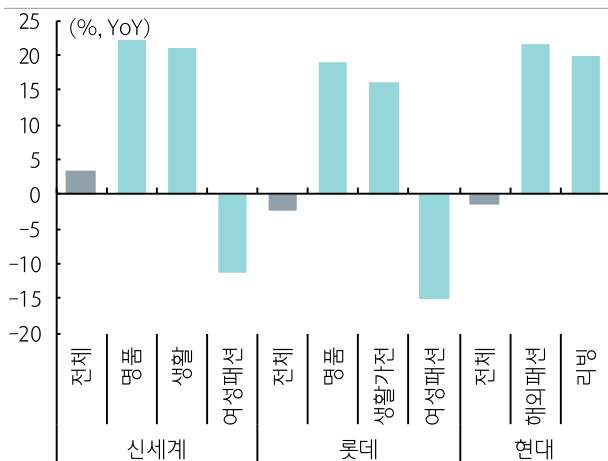
표5 | 최근 소비 회복을 선도하는 트렌드

구분	내용
언택트	- Un + Contact의 합성어로 비대면 선호 현상을 지칭하며 전염 우려에 따라 코로나 이후 확대 - 온라인 및 근거리 소형 점포 구매, 배달 음식 선호, 온라인 음식 구매 등의 소비 행태가 나타남
홈코노미	- home과 economy의 합성어로 외출 자제에 따라 집 안에서 다양한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칭 - 가정 내 식사(배달, HMR 등) 및 홈 인테리어(가전, 리빙 등) 상품 구매 증가
프리미엄 소비	- 코로나 직후 오프라인 명품 소비가 위축되었으나, 해외여행 및 공연 관람 등 여타 사치재적 성격의 소비를 자제하면서 해당 자금이 럭셔리 상품 구매로 대체되면서 회복세

자료 : 언론자료, 하나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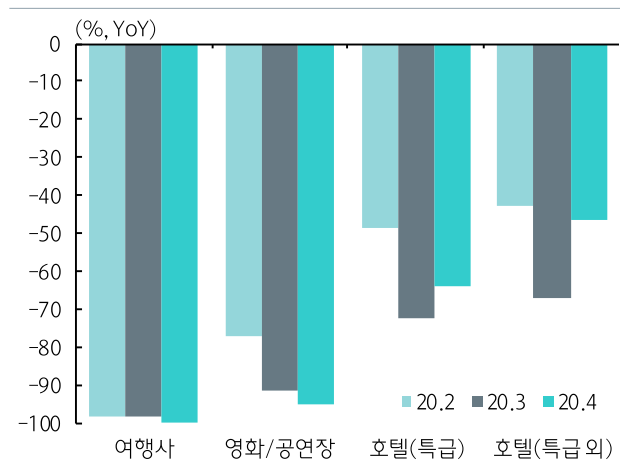
조*경/0118430**/2020-05-13 09:23

그림19 | 4.30~5.3 연휴 기간 백화점 3사 매출 증감률



주 : 2019년 5월 3~6일 연휴 기간과 비교
자료 : 각 사, 조선비즈

그림20 | 여행, 공연, 숙박업 카드 결제액



자료 : 내부자료

L. 부동산 및 임대 : 공모 리츠 가격, 부동산 내재가치보다는 KOSPI에 연동

※ **Summary** :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시장에 안착했던 공모 리츠가 연초 이후 약세를 지속하고 있음. 부동산 임대료 등을 배당 자원으로 활용하는 리츠 구조 상 가치 변화가 크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의 위축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이는 리츠가 발달한 미국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현상으로 원인은 불분명하며 리츠 고유의 위험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Comment** : 배당 수익률은 높아졌으나 현 가격 수준은 고점 대비 크게 하락한 상황으로 회복이 지연될 경우 리츠 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을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시 주의를 요함

■ 공모형 리츠, 공모 시점에서의 기대와 달리 연초 이후 약세 지속

- 안정적인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인기가 높았던 공모 리츠의 주가가 연초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주요 공모 리츠 가격 변동률(연초 → 5.8일 종가) : 신한알파리츠 -19.5%, 롯데리츠 -15.3%, 이리츠코크랩 -21.8%, NH프라임리츠 -20.0%
- 같은 기간 KOSPI 지수가 10.5%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공모 리츠들의 가격 하락폭은 비교적 큰 편이며 공모 리츠의 수익구조를 고려할 때에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상황
 - 리츠는 부동산 임대수익 등으로 얻어진 이익의 대부분을 배당하는 구조이므로 임대료 등이 급락하지 않으면 주주의 이익에 큰 변화가 발생하지 않음
- 다만, 이들 공모 리츠들이 발행 이후 공모가의 최대 2배 가까이 상승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기간에 빠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거품이 걷히는 중이라는 평가도 존재

조*경/0118430**/2020-05-13 09:23

■ 리츠 가격 약세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의 추이 및 리츠 구조와도 상충되는 등 이론과 괴리

-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점이 리츠 가격에 반영되었다는 의견이 있으나 리츠 구조를 감안하면 옳지 않은 의견
 - 언택트 문화와 관련이 있는 대형 할인마트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롯데리츠, 이리츠코크랩)는 대부분 책임임차에 기반한 확정수익을 전제로 하고 있음
- 대기업이 임차하는 도심 대형 오피스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리츠(신한알파리츠, NH프라임리츠) 역시 같은 기간 약세를 보인 것은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는 설명이 불가능
- 상가 임차 시장은 약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오피스 임차시장은 점진적인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 풍부한 유동성으로 우량 임차인이 확보된 도심의 대형 오피스에 대한 투자수요는 여전히 강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리츠 주가의 흐름은 이론과 괴리가 있다고 평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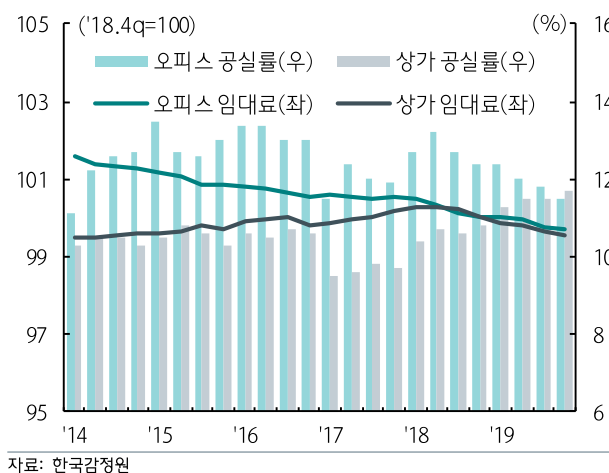
■ 이유는 불분명하나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종합주가지수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

- 이러한 리츠 실제 가격과 이론과의 괴리는 공모 리츠 시장이 발달한 미국에서도 발견되어 왔으며 대부분 공모 리츠 가격은 종합주가지수와 동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 종합주가지수보다는 Russell 3000과 같은 중소형주 지수와 동행성이 더 높았음
- 국내 역시 KOSPI 지수와 동행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으며 기초자산에 따른 동행성의 차이도 크지 않아 주식시장 고유의 원인으로 리츠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정
 - KOSPI 지수와 리츠 주가의 상관관계(연초~5.8일 종가) : 롯데리츠 0.906, 이라츠코크렐 0.911, 신한알파리츠 0.834, NH프라임리츠 0.909
- 단기적으로는 파악되지 못한 기초 부동산 가격의 변화가 반영되었다는 설, 투자자들이 리츠를 주식의 일종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라는 설 등이 원인으로 추정되나 명확하지는 않으며 리츠가 지니는 고유한 위험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코로나19로 위축된 주식시장의 회복 여부가 공모 리츠 가격 향방에 주요한 열쇠가 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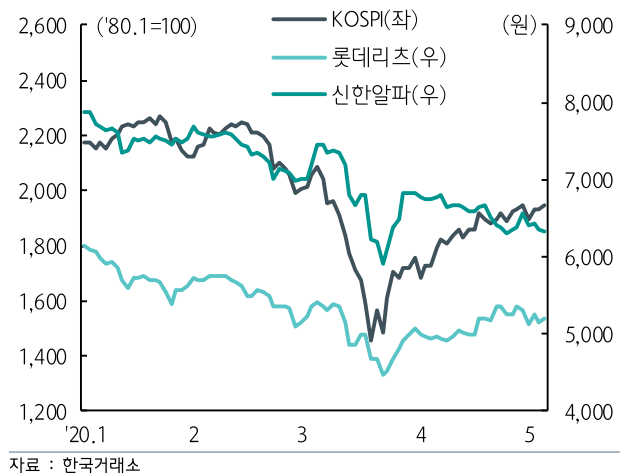
- 미국의 사례 등을 고려할 때 리츠 가격의 회복은 종합주가지수의 회복과 같은 주식시장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인식 개선이 전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가격이 낮아졌으나 기존의 임대료가 변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배당 수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과거보다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다만, 리츠의 구조 상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고 최고점 대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단기간 내에 가격이 회복되지 않으면 투자자의 신뢰를 잃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함
 - 리츠는 얻어지는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므로 구조적으로 사내유보가 불가능해 투자를 통한 주식의 내재가치 개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성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그림21 | 상업용 부동산 임대료 및 공실률 추이



자료: 한국감정원

그림22 | KOSPI 및 주요 리츠 가격 추이



자료: 한국거래소



산업별 주요 지표

하나은행

조*경/0118430**/2020-05-13 09:23

음식료(C1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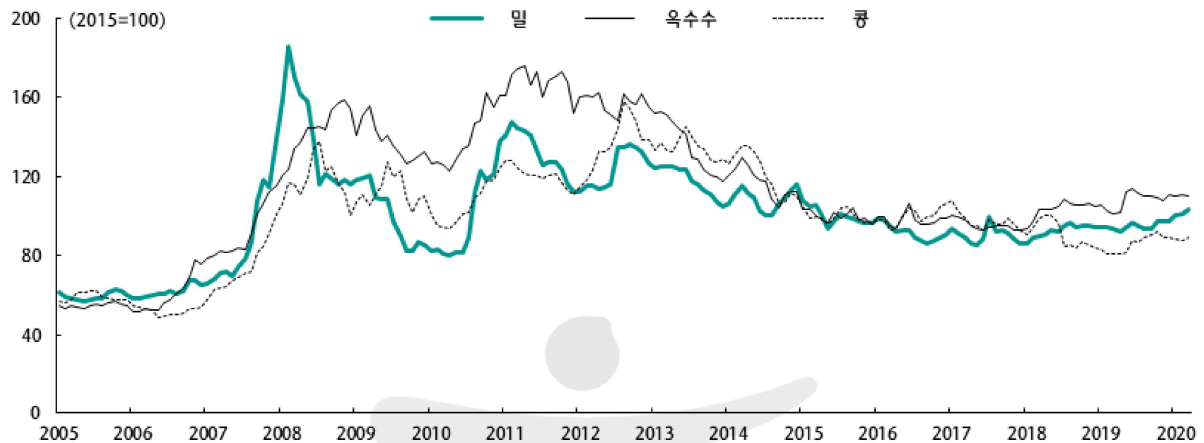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3 | 국내 곡물 수입가격 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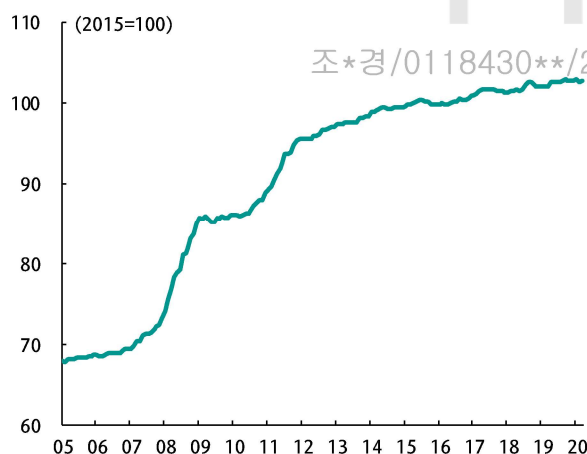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2020년 초 코로나19의 충격으로 밀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나, 옥수수 및 원당은 비교적 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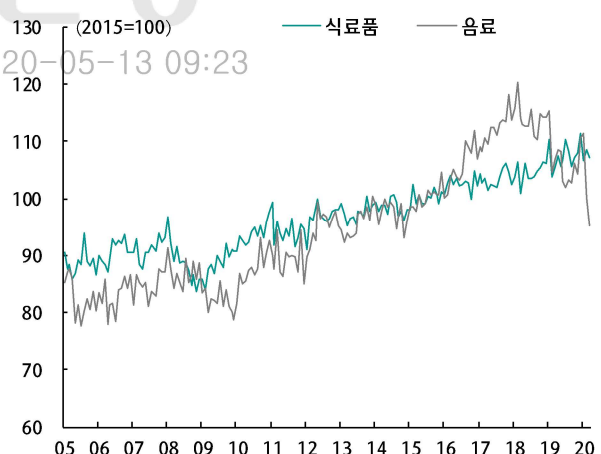
- 최근 몇 년간 국제 곡물가격은 기후 호조에 따른 생산량 증가, 소비량 제한에 따른 수급 안정 등으로 하향 안정화 추세를 지속해 왔으나, 2019년 말 이후 상승 전환
- 2020년 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 이후 각국의 식량 수출 제한이 현실화되는 등 공급 위축 요인으로 곡물가격이 상승 중. 다만 국제 유가 약세 등을 고려할 때 대체연료로 사용되는 옥수수, 원당 등의 가격은 상승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

그림24 | 음식료품 제품가격 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그림25 | 음식료품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2020년 내수 경기 둔화로 제품가격 인상 제한적

- 코로나 19에 따른 소비심리 약화 및 저유가로 국내 소비자물가가 약세를 보이면서 음식료품 가격의 상승도 제한될 전망

■ 2020년 들어 음료 출하지수가 급락

- 2020년 들어 식료품과 음료 출하지수가 하락하고 있으며, 특히 3월 음료 출하지수는 전월대비 5p 이상 급락

정유(C19)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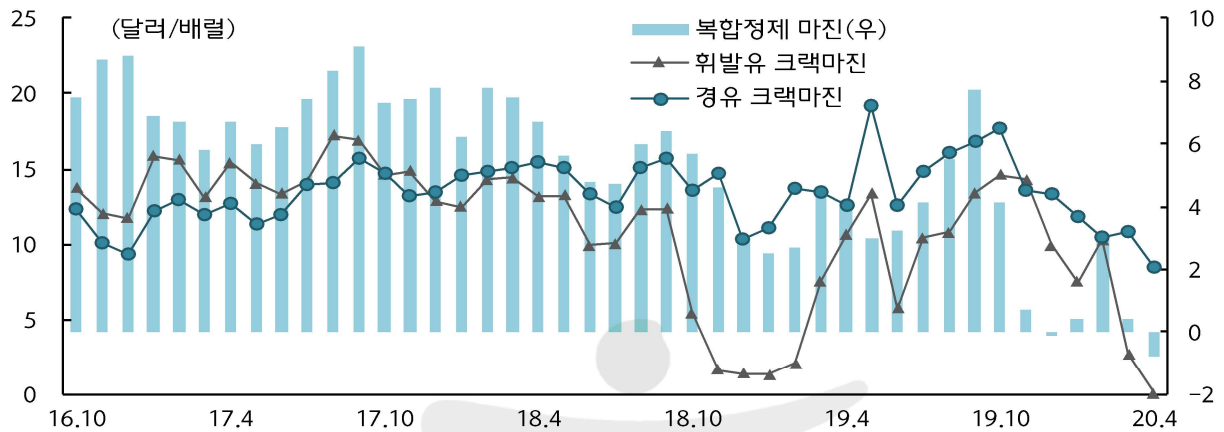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6 | 정제마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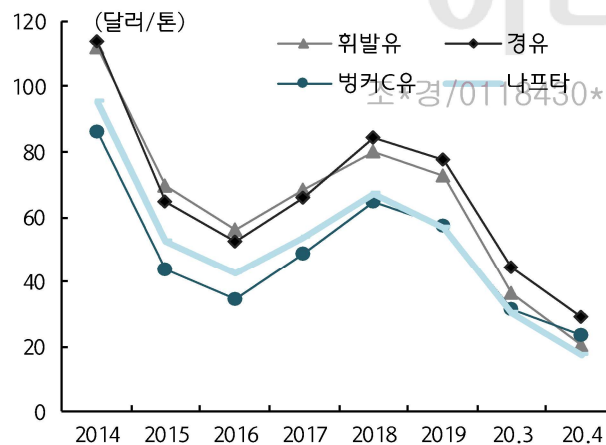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4월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수요 감소, 유가 급락으로 복합정제마진은 월간으로 마이너스 기록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사우디와 러시아간 유가 전쟁으로 유가가 18년 내 최저 수준으로 급락하면서 복합정제마진은 급격하게 하락하여 4월 -0.8달러/배럴을 기록
- 4월 휘발유의 크랙마진은 각각 0.1\$/bbl로 전월비 96% 하락하였고 경유의 크랙마진도 8.4\$/bbl로 전월비 22.2% 하락

그림27 | 석유제품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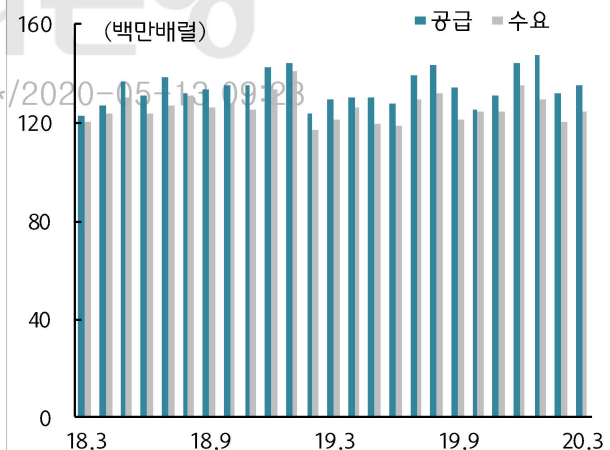


자료: 페트로넷

■ 유가 급락으로 주요 제품 가격도 하락

- 유가 하락 및 경기 침체에 따른 석유제품 수요 둔화로 휘발유, 경유 등 주요 제품의 가격 약세는 지속

그림28 | 국내 석유정제품 수급 추이



자료: 페트로넷

■ 석유제품 소비 부진으로 공급과잉 상황 지속

- 글로벌 경기침체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석유제품 내수, 수출 부진으로 공급이 수요를 크게 상회
- '20년 2월(1~3월 누계) 석유제품 공급은 전년동기비 4.3% 증가한 반면, 수요는 2%대 증가에 그침(국내 수요는 7%대 감소)

철강(C24)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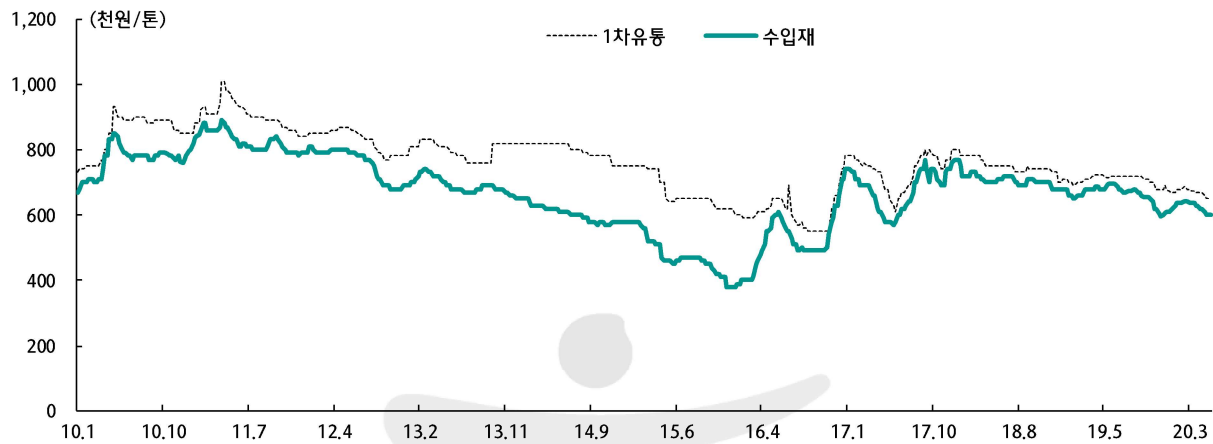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29 | 국내 철강(고로 열연)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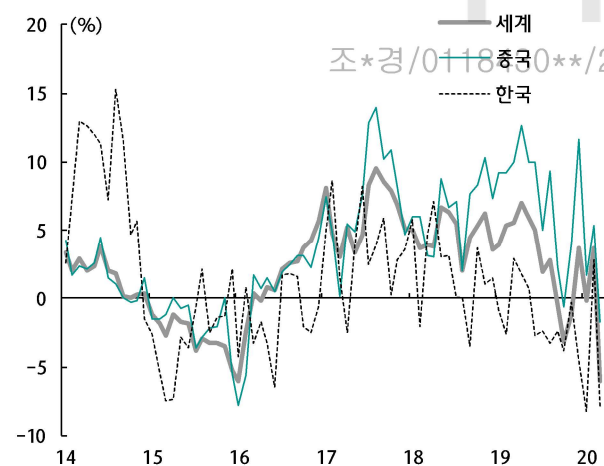


자료: 한국철강신문

■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제 금속가격이 급락. 국내는 소폭 하락

-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확산 및 산업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몇 년간 약세를 지속해 온 국제 철강가격이 2020년 초 코로나19 충격으로 큰 폭으로 하락
- 국내 유통가격의 경우 소폭 하락에 그쳤으나, 3월 이후 수입재 하락폭이 커지면서 국내산 제품 가격까지 약세를 보이고 있으며, 향후 자동차·조선·건설 등의 전방산업 수요부진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편

그림30 | 주요국 조강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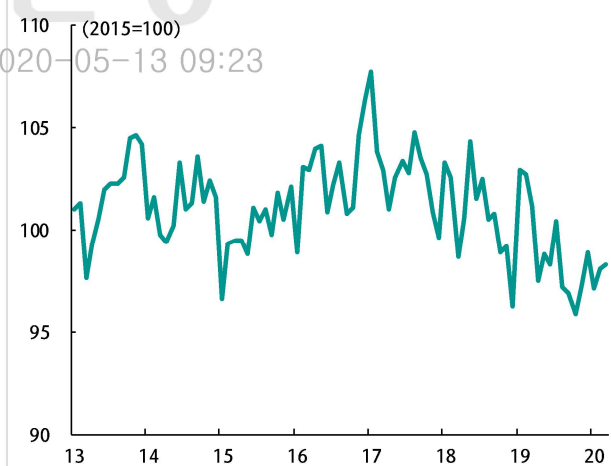


자료: World Steel Association

■ 2020년 1분기전 세계 조강 생산 1.4%(yoy) 감소

- 1분기 전 세계 조강생산량이 전년동기대비 1.4% 감소(중국 1.2%, 미국 -1.0%, 일본 -2.4%, 인도 -5.3%). 한국 또한 수요 감소 및 공급조절 등의 영향으로 4.8%(yoy) 감소

그림31 | 국내 1차 금속 출하지수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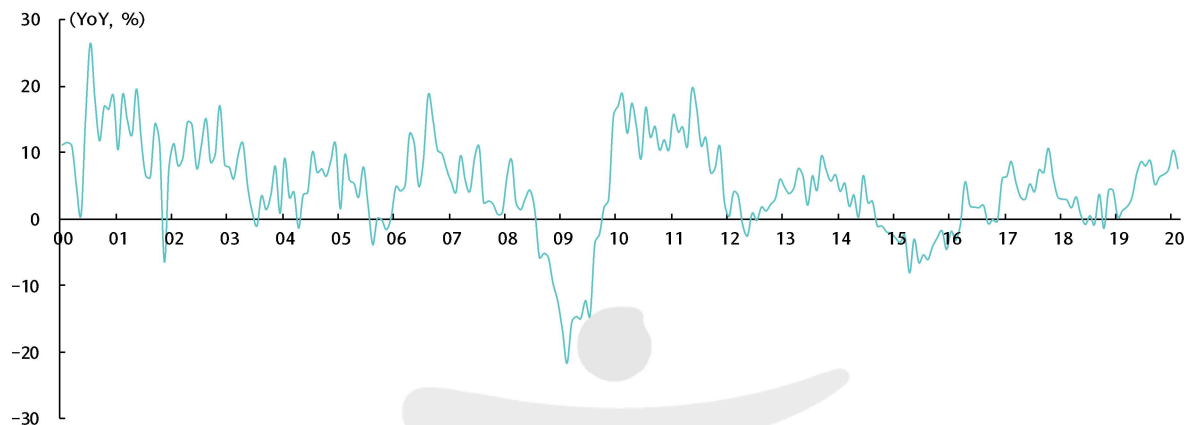
■ 2020년 국내 금속 출하지수 추가 하락 예상

- 1분기 자동차 생산 중단 등의 전방산업 시장 위축으로 철강 수요가 감소하자, 포스코는 2분기 이후 유연생산체제로 감산에 돌입하였는데, 이는 창사 이래 두 번째

자동차(C30)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할향 둔화

그림32 | 국내 완성차 수출단가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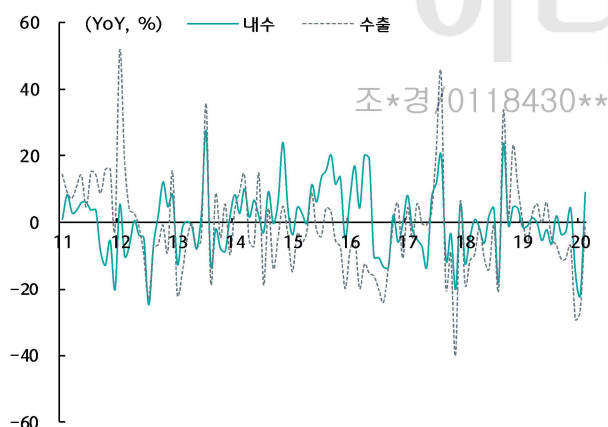


자료: KAMA,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3월 완성차 수출단가는 전년동월대비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3월 완성차 수출물량은 전년동월대비 -0.7% 감소한 반면, 수출금액은 같은 기간 +3.0%로 증가하면서, 수출금액을 수출물량으로 나눈 수출단가가 오히려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냄
- 3월 수출단가는 대당 1만 7,010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33 | 국내 내수/수출 판매 증감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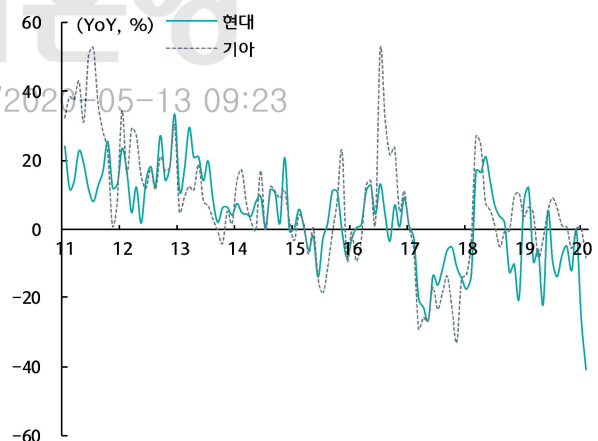


자료: KAMA

■ 3월 내수와 수출은 2월에 비해 소폭 개선

- '20년 3월 내수판매는 코로나19의 확산에도 개별소비세 인하, 신차 효과 등으로 전년동월대비 +9.1%를 나타냄
- '20년 3월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해 차질을 빚었던 2월 일부 수출 물량이 3월로 이연되면서 전년동월대비 -0.7%에 감소에 그침

그림34 | 현대/기아차 해외생산 증감을 추이



자료: KAMA

■ 3월 해외생산은 전월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

- '20년 3월 현대/기아 해외생산은 25.4만 여대로 전월대비 +3.0%, 전년동월대비 -31.4%로 나타남
- '18년 3월 대비 -24.4%를 나타내며, 전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

조선(C31)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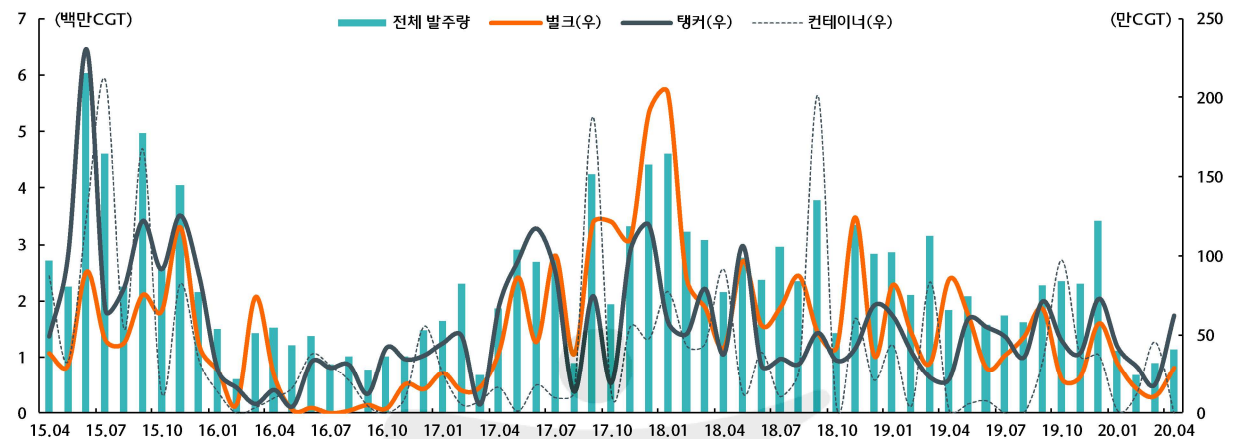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5 | 전 세계 선박 발주량(선종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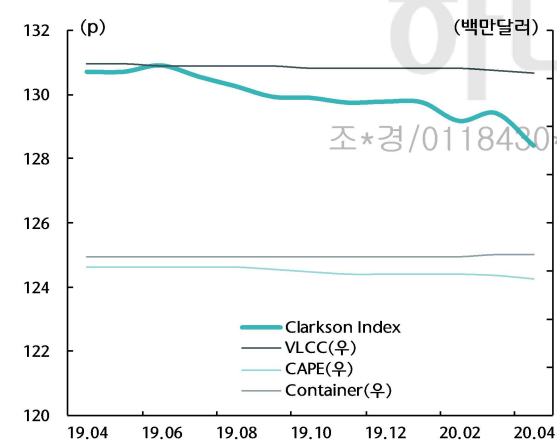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4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전월대비 증가하였지만, 절대적인 발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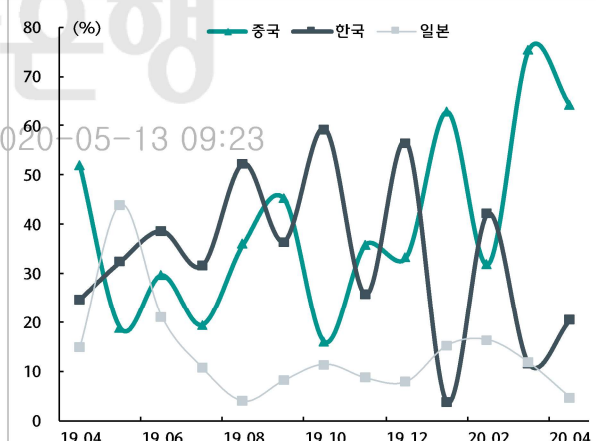
- 4월 전 세계 상선 발주량은 다수의 벌크선과 석유제품선 발주에 힘입어 전월대비 27.0% 증가한 약 1.1백만CGT를 기록하였지만, 전년동월대비로는 37.9% 감소하여 절대적인 발주량은 여전히 낮은 수준
- 4월 주요 선종별 발주 척수(총 85척) : 벌크선 16척, 케미컬선 1척, LPG선 4척, 석유제품선 12척, 탱커선 3척 등

그림36 | Clarkson 신조선가 지수



자료: Clarkson

그림37 | 국가별 상선 수주점유율



자료: Clarkson

■ 4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128p로 1p 하락

- 4월 클락슨 신조선가 지수는 3월대비 1p 하락한 128p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2018년 7월 이후 최저 수준
- 주요 선종별 신조선가: Cape선 \$48.5M, VLCC \$91.0M, 4,800TEU 컨선 \$53.5M, 174K CBM LNG선 \$186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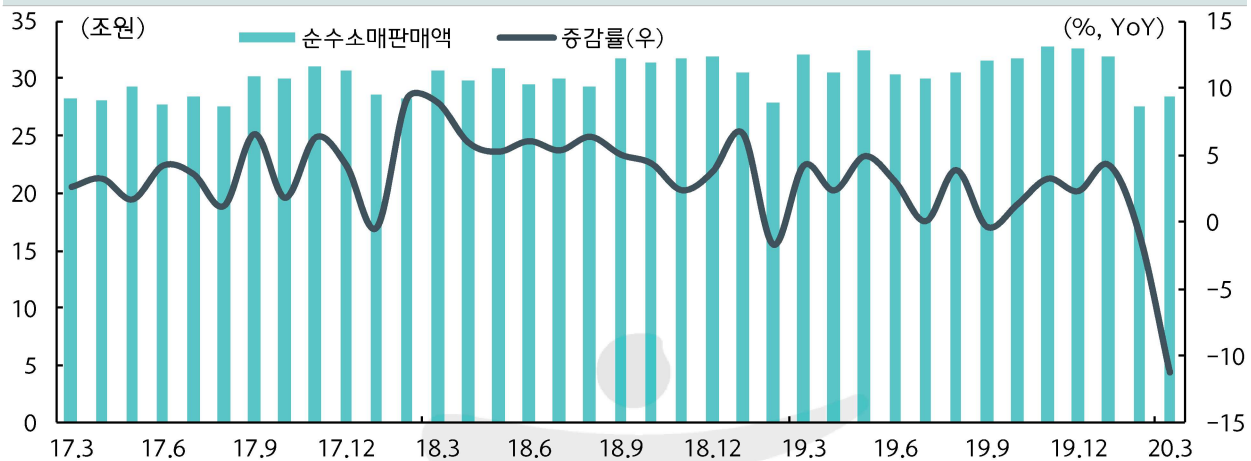
■ 4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중국이 1위

- 4월 국가별 수주점유율은 중국이 벌크선과 석유제품선을 다수 수주한데 힘입어 압도적 1위를 기록 (한·중·일 수주점유율 : 중국 64%, 한국 20%, 일본 5%)
- 한국 수주 : 현대미포조선 6척, 삼성중공업 2척(탱커선)

유통(G)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38 | 순수소매판매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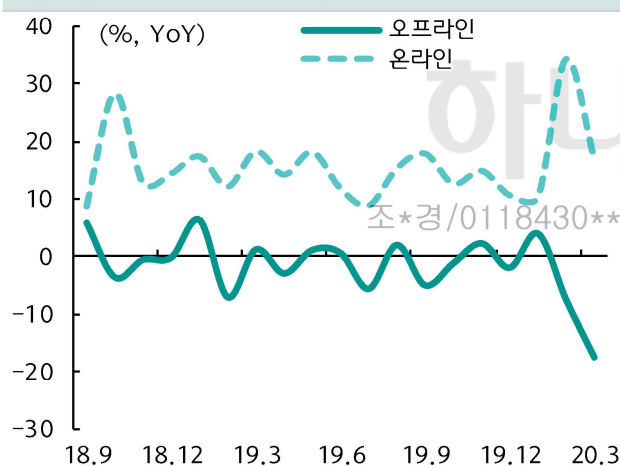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3월,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 면세점 등이 침체되며 소매판매액 급감

- 순수소매판매액(자동차 및 연료 판매액 제외) 증감률은 3월에 코로나 우려 심화로 백화점, 면세점 등을 중심으로 판매액이 급감하면서 전년동월대비 -11.3% 기록

그림39 | 주요 오프라인 업체들의 매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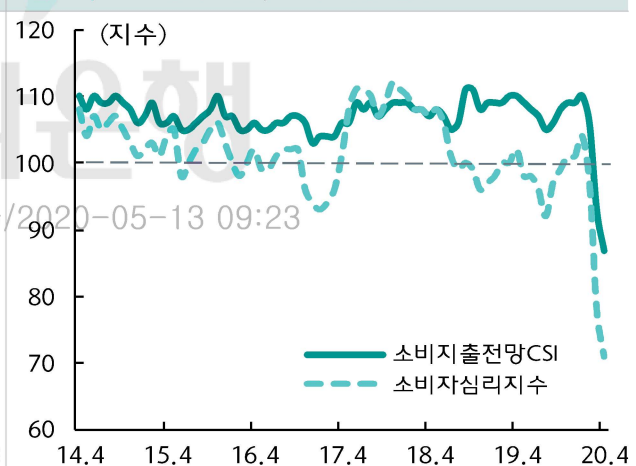
주: 오프라인-편의점(3사), SSM(4사), 백화점(3사), 대형마트(3사)
온라인-온라인판매중개(4사), 온라인판매(9사)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코로나19에 따라 오프라인 침체

- 오프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접촉 기피 현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전년동월대비 -17.6% 기록
- 반면, 온라인은 언택트 소비 확대의 긍정적 영향으로 전년동월대비 16.9% 증가

그림40 | 소비 심리 지수, 소비 지출 전망



자료: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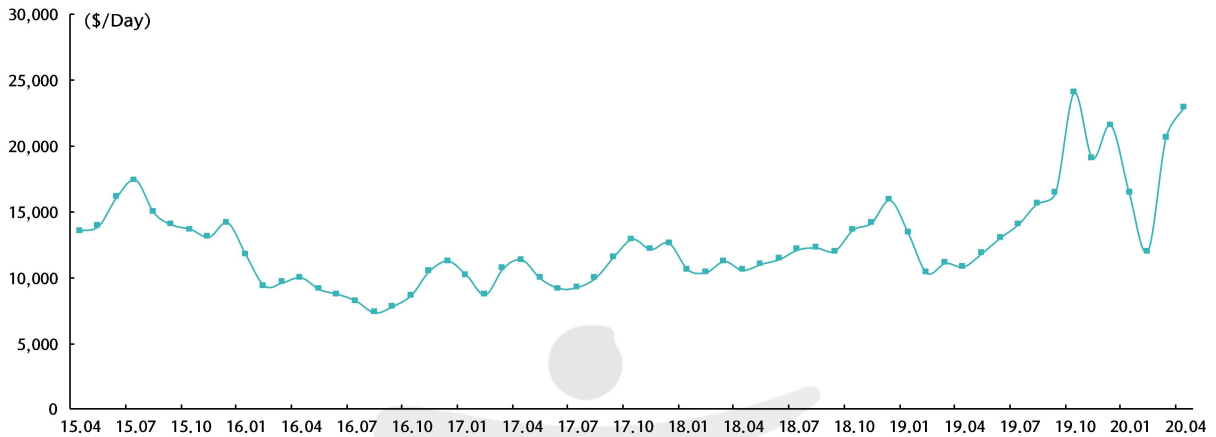
■ 소비심리 지수는 4월에도 전월대비 악화

- 코로나19 우려가 높아진 3월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지출전망CSI는 각각 78, 93를 기록하며 크게 위축
- 4월에는 미래 경기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심리지수, 소비자지출전망CSI가 전월보다 악화된 71, 87 기록

해상운송(I. 운수)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 41 | Clarkson 해운종합지수(ClarkeSea Inde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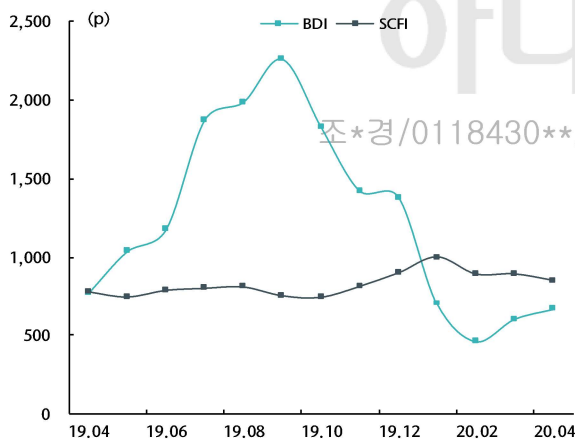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4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탱커선 운임 강세에 힘입어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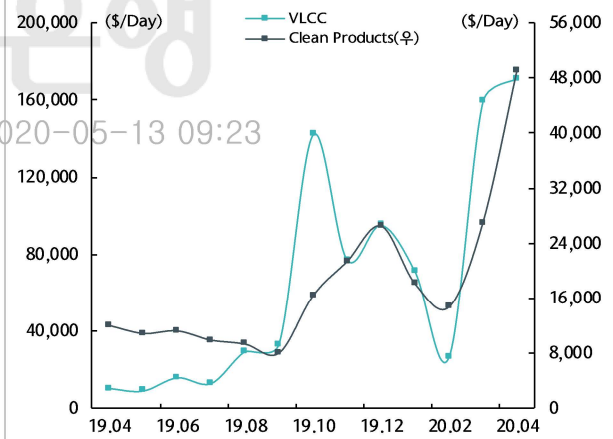
- 4월 Clarkson 해운종합지수는 전월대비 11.2% 상승한 \$22,966/Day를 기록. 선종별로는 탱커선 운임은 저유가에 따른 비축 수요 증가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이어간 반면 벌크선과 컨테이너선 운임은 부진
- 4월 LNG선 운임(174K CBM 기준)은 전월과 동일한 \$50,375/Day를 기록하여 운임 약세 지속

그림 42 | 벌크선(BDI) 및 컨테이너선(SCFI) 운임 지수



자료: Clarkson

그림 43 | 탱커선 운임(Earnings)



자료: Clarkson

■ BDI 지수는 상승한 반면 SCFI 지수는 하락

- 4월 BDI 지수는 664p로 전월대비 10.4% 상승하였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 동월 컨테이너선 운임 지수(SCFI)는 전월대비 4.6% 하락한 851p를 기록(선사들의 공급 조절로 운임 하락 최소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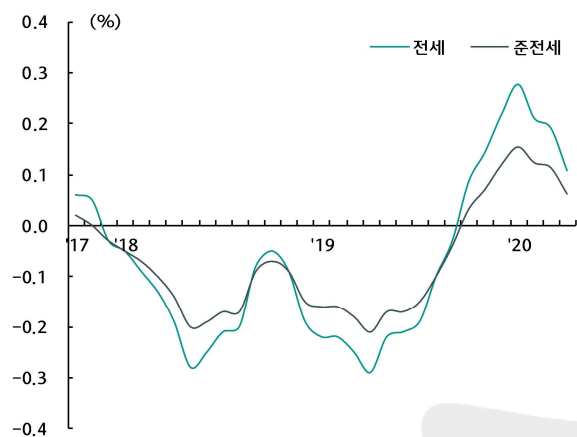
■ 탱커선은 VLCC 및 석유제품선 운임 모두 상승

- 4월 초대형유조선 운임은 유가 급락에 따른 비축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7.4% 상승한 \$171,127/Day를 기록
- 동월 석유제품선 운임 또한 제품가 하락에 따른 수요 증가로 전월대비 81.4% 상승한 \$48,988/Day를 기록

부동산 및 임대업(L) Industry Cycle

둔화(주의) **침체** 회복 안정 활황 둔화

그림44 | 전국 주택 전세 및 준전세 가격 변동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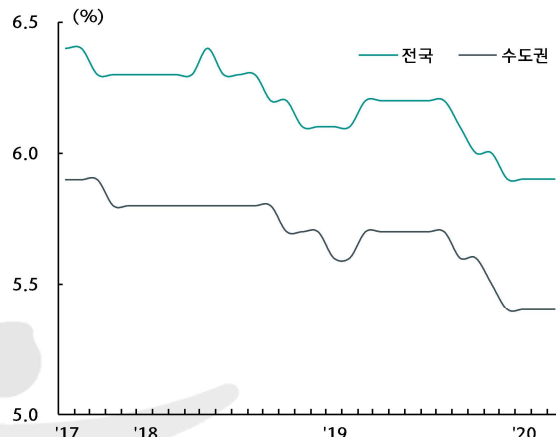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 전세가격 상승세 점진적으로 둔화

- 집중되었던 아파트 입주가 일단락되면서 상승하던 전세가 격은 최근 들어 상승세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중
- 연말 · 연초 집중된 투자수요가 전세매물로 전환되면서 시장 내 전세공급이 비교적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추정

그림45 | 주택 전월세 전환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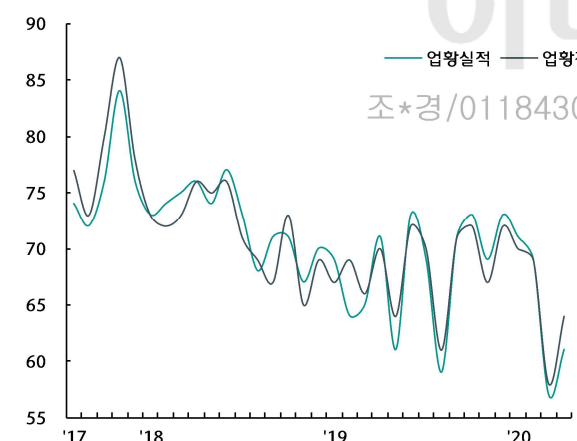


자료: 한국감정원

■ 한은 금리인하에도 전월세 전환율 제자리 걸음

- 3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전월세 전환율은 연초 이후 제자리 걸음을 지속하는 중
- 한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시장금리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어 당분간 전월세 전환율 역시 안정적인 전망

그림46 | 기업경기 실사지수(부동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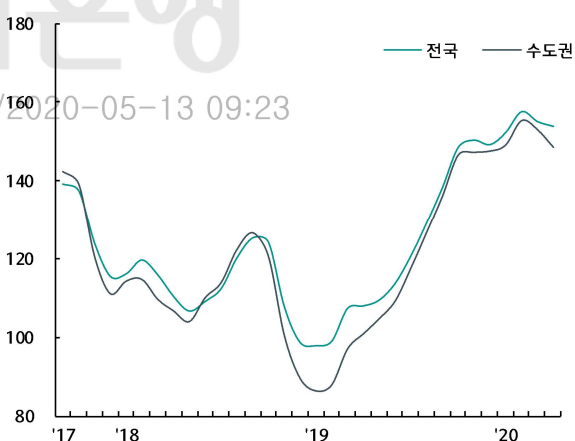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코로나19로 인한 부동산업 체감경기 급락

- 정부의 규제와 코로나19로 인한 임차인 매출 감소로 부동산업 체감경기는 급락
- 다만, 코로나19 진정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업황 전망은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은 다소 긍정적

그림47 | 주택 전세 수급지수



자료: KB부동산

■ 전월세 시장 당분간 강세 이어질 전망

- 전세 수급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전월세 가격의 강세가 당분간 이어질 전망
- 최근 수도권 전세 수급지수가 다소 하락했으나 여전히 과거 대비 매우 높은 수준임

하나 산업정보 Hana Industry Info.

150-7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TEL 02-2002-2200

FAX 02-2002-2610

<http://www.hanafri.com>



조*경/0118430**/2020-05-13 09:23